

전승보전위 6개월째 휴업 잠녀 세계화 공염불 될라

도, 이달중 재구성...정책 연속성·의지 의심
해녀축제도 오락가락...정책방향 설정 필요

등록 : 2013년 04월 16일 (화) 20:41:30 | 승인 : 2013년 04월 16일 (화) 20:43:39
최종수정 : 2013년 04월 16일 (화) 20:41:30

고 미 기자 ✉ popmee@hanmail.net

잠녀·잠녀문화를 '세계화'하겠다는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. 잠녀·잠녀문화 세계화 작업이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구심적 역할을 할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(이하 전승보전위원회) 활동이 지난해 9월 이후 멈춘 이후 이달 중 재구성 예정에 있는 등 연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데다 아직까지 '전승·보전' 대상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들이 '중구난방'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제주잠녀·문화 세계화 5개년(2011~2015)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 사업으로 전승보전 위원회를 구성했다. 2011년 7월 출범한 전승보전위원회는 제주 잠녀·잠녀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관련 사업이나 정책 발굴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 등 도의 세계화 작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다. 하지만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. 여기에 '임기 2년'이란 기준을 적용, 이달 중 새로운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에 있는 등 출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.

전승보전위원회가 구성 근거인 '해녀문화 보존 및 지원 조례'(2009년 11월)가 탄생한지 2년여 만에 꾸려진 것인데다 '잠녀·잠녀문화'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에서 세계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도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.

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등 도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에 있어 도가 전문성이나 공론화 작업을 무시한 채 성과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. 실제 2011년 잠녀·잠녀문화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겠다며 전·현직 어촌계장과 잠수회장 등으로 구성된 '제주잠녀문화 세계화 워킹그룹'이 단 한 차례 회의 이후 유아무야됐는가 하면 세계화 대표 아이টে으로 꿈꿨던 '해녀 축제'마저 도의 대표 축제 개발 의지에 밀려 탐라문화제에 재흡수 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.

해녀축제는 '물 때' 등 외부 조건으로 인해 탐라문화제와는 별도의 일정을 진행하게 됐지만 잠녀문화를 세계에 알릴 창구로 규모화 하겠다고던 입장이 단 1년 만에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.

정책 기초 자료가 될 전수조사와 생애사 조사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올해야 추진되는가 하면 이마저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며 제주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등 잠녀 관련 정책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.

사정이 이렇다보니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·제도개선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'해녀육성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'에서도 추상적인 제안과 함께 직업군으로의 잠수어업인과 제주 대표 문화콘텐츠로의 잠녀가 상충하며 적절한 대안을 정리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.

전승보전위원회 관계자는 "정책 제안을 하더라도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묵살되는 일이 적잖은 등 운영상의 문제도 적잖았다"며 "도 스스로 잠녀·잠녀문화 세계화에 있어 정책 방향을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다. 고 미 기자